

통권 제 232호

강남. 라 00943

2567
2023

02

원정대성사 일대기
불공살해라 9
큰 단련의 시간



불교이야기
보시 3



속담으로 보는 불교
모래로 밥 짓기

영원한 진리와 함께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불교충지중

대아에 살자

우리는 크게 살자. 사람은 목표에 따라 행동이 다르다. 자기만을 위한 자, 그 행동이 작을 것이요, 나라나 사회를 위한 자, 그 행동이 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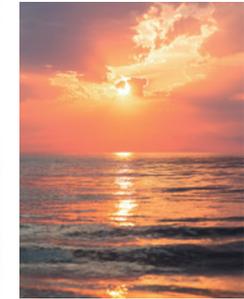
살다보면 _ 18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_ 이옥경



십선성취 _ 42

해금, 중도를 말하다
_ 남해 정사



여행여담 _ 57

해파랑길 기행下
_ 우연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 12 불교이야기
- 18 살다보면
- 24 죽비소리
- 27 경전에서 찾은 지혜
- 30 우리절 노래꽃
- 32 붓다in미디어
- 35 마음의 등불
- 38 지혜의 트랙
- 42 십선성취
- 46 속담으로 보는 불교
- 50 가배이야기
- 54 차향기
- 57 여행여담
- 60 문화재 해설
- 64 서원당 안의 불교
- 66 마지막 공부
- 70 씨앗 한 알
- 73 동행
-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 78 법회일정

- 불공 잘해라 -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 김천
- 보시布施 3 - 화령 정사
-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 이옥경
- 미묘한 인연사因緣事 - 김봉래
- 지혜 있는 자는 재해가 없다 - 불교총지중 법장원
- 찬불가 <우리 총지중> - 묘원화 전수
-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 조세훈 작가
- 달빛 속을 거닐며 사람을 기다리다 - 이기찬
- 법과 원칙이 중요한 이유 - 방귀희
- 해금, 중도를 말하다 - 남해 정사
- 미래로 밥 짓기 - 김성철
- 사찰의 커피문화 - 김상미
- 우리나라 전통음료 - 김정애
- 해파랑길 기행下 - 우연우연
- 인왕제색도, 한국 회화사를 대표하는 걸작 - 위드다르마 편집실
- 진호국가불공과 사대천왕 - 혜광 정사
- 낙엽 한 뼉의 사랑 - 유소림
- 마음이 열릴 때와 닫힐 때 - 법상 스님
- 우리 언니 - 김옥희 보살

예쁜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보, 당신이 재영이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줘.
난 오늘도 야근할 것 같아, 미안해.”
유난히 피곤한 아내의 목소리를 전화로 듣고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최근 야근이 늘어 피곤함에 지친 아내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아들 녀석을 씻기고 저녁먹이고
유치원 숙제를 차근차근 보았습니다.

겨우 설거지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고
TV를 켰는데 해외토평에 미인대회가 나왔습니다.
마침 아내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오더니
화려하게 치장된 세계 각국의 미녀들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부자를 보고서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심코 변명하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미인대회라는 게 뭐야?”

순간 당황한 나는 더듬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그거는 그냥 예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여자에게 상 주는 거야..”

나의 대답에 아들은 엄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왜 저기에 안 나갔어?”

그 말에 아내는 피곤함에 지친 표정이
단번에 사라지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진심이 담긴 손짓 하나로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보세요.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12월 14일 자>



불공 잘해라 제2장 큰 단련의 시간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종자'
'인생탈출-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事相)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8화 - 전쟁(2)

이때부터 대성사의 일과가 달라졌다. 금강관은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렸고, 대성사는 관세음보살 염송하기를 정오까지 그치지 않았다. 아침상을 들일 때를 맡고는 잠시도 그치지 않고 일심으로 염송할 뿐 아니라 간간히 포행 할 때도 마음을 다져먹고 일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기도를 올린 지 삼칠일이 되자 마음에 의심이 사라졌고, 무거운 먹구름이 가셨다. 비록 자식의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생겼다. 더 이상 자식의 생사와 소식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도의 감응이 있었다.

간절한 기도는 대성사를 더더욱 불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만주에서 모았던 불교 서적들을 다시 펼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

고 새기기를 하루 일과의 전부로 삼았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함으로써 자식뿐 아니라 이 땅에서 전쟁으로 고통 받고 희생된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대성사 가족은 물론이고 인척과 이웃도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대성사를 보고 따라 함께 기도하는 일이 늘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대성사 친인척과 그를 아는 밀양 사람들은 대성사를 보면 당연히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웠다고 한다. 낙동강까지 밀렸던 전선은 인천상륙작전으로 북상하기 시작했다. 서울이 수복되고 38선 너머로 국군과 유엔군이 진격하자 대성사는 더욱 간절히 아들의 소식이 있기를 기대했다. 서울 하숙집에 기별해도 소식을 알 수 없었고, 밀양 출신의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모른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주변에서는 제삿날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지만, 대성사는 한결같이 “관세음보살”만을 외울 뿐이었다. 언제나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염하던 어느 날 대성사는 잠깐 삼매에 들게 된다. 자식을 걱정하던 마음과 두려움이 오롯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모두가 또렷이 본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시간이 정지되고 세상 모든 것과 일치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놀라운 찰나를 맞을 때 누군가 급히 대문을 두드렸다. 이어서 금강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기별이 온 것이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서울이 급격히 인민군 치하에 들어가자 손순표는 피난 시기를 놓쳤다. 하숙집을 나와 학교로 가던 길에 인민군의 검문에 걸리게 되고 이내 의용군으로 징집됐다. 군사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급된 군복과 총을 받아 인민군의 남행 길에 동참했다. 개인의 의지와 이념은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밀양 집으로 연락할 아무런 방도가 없이 다른 인민군 병사들과 함께 남으로 행군하는 뜻밖의 사태가 벌어졌다. 거칠 것 없이 남으로 향하던 인민군 행렬이 가로막힌 것은 영천 부근에서였다. 손순표는 고향 집이 가까워질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커졌다. 승승장구하던 인민군 행렬에 유엔군의 폭격이 잦아졌다. 행군 도중 비행기를 피해 숨어야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다. 인공기 아래 통일을 이룰 것 같던 인민군은 낙동강 전선에 발이 묶였다.

소위 부산 교두보 전투 또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로 불리는 저항선이 펼쳐졌다. 1950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낙동강을 최후의 보루로 삼은 전투가 벌어졌다. 전쟁 중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이 펼쳐졌다. 포탄이 빗발치고 죽어가는 병사

와 상처를 입은 이들이 뒤섞여 대지 위로 붉은 피가 강을 이루어 흘렀다. 당시 낙동강은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피로 물들었다. 산과 들은 포탄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미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소강상태의 전선은 조금씩 북으로 밀려갔다. 미군은 정밀 폭격과 화력을 앞세운 막강한 전력으로 인민군을 밀어붙였다. 곳곳에서 전선이 흐트러졌고, 국군은 그 틈새를 뚫고 나갔다.

손순표의 앞에는 미군의 폭격이 덮쳤고 뒤에는 후퇴하면 총살이라는 독전대의 독설이 이어졌다. 참호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때 전선은 포탄과 총탄이 빗발쳤다. 인민군 대부분은 고립된 채 전선은 고착되고 있었다. 죽음과 삶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잠시 포격이 멎자 손순표는 밀려오는 미군의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게 된다. 참호 속에 갇힌 그에게 흑인 병사는 총구를 겨누었고, 손순표는 순순히 손을 들어 투항한다. 낙동강 전선 영천 인근에서 손순표는 미1기병사단의 포로가 됐다. 이때가 1950년 9월의 일이다.

포로가 된 손순표는 일단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옮겨져 전쟁포로의 신분이 된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로수용소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 같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남쪽 출

신 북쪽 출신으로 편이 나뉘고, 이념과 신분에 따라 패가 갈렸다. 거제도 포로수용소 내부의 테러와 살육은 전쟁터보다 나을 바 없는 지옥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1951년 7월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되면서 전쟁포로 문제는 가장 심각한 주제로 떠올랐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포로들의 의사를 확인해 남과 북으로 송환할 것을 합의하자 수용소 내부는 더 큰 참변이 발생했다. 소위 반공 포로를 막기 위해 친공 캠프에서는 날마다 사상 검증과 인민재판을 벌였고, 남쪽 출신이던 손순표도 인민재판의 대상이 됐다. 남쪽 출신에다 대학생 신분으로 부르주아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꿈쩍 없이 처형을 앞두게 됐다.

한밤중 막사의 창과 문을 모두 가린 채 인민재판이 열렸다. 사상이 의심되고 소위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이들은 한 명씩 재판정에 섰다. 이윽고 손순표의 차례가 되자 서슬 퍼렇게 사상검증을 하던 인민군 군관은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곧바로 선언했다.

“이 동무는 누가 봐도 반동이요. 인민의 고크로 호의호식한 파렴치한 적이요. 이런 적은 기회만 생기면 다시 인민을 수탈할 것이요. 더 볼 것 없이 처단해야 하지만 혹시라도 이 동무에 대해 아는 사람 있으면 말하시요.”



삽화= 종조 일대기 (불공질해라) 중에서

침묵이 인민재판장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아무도 나서서 변론하지 않는다면 끌려가 처형될 위기가 닥쳤다. 이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나선 이가 있었다. 그는 밀양 출신으로 진즉 월북하여 인민군 군관이 된 이였다. 밀양에서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대성사와 인연이 있었다.

“그자는 부르주아 출신이 아닙니다. 조부는 독립운동을 했고, 부친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농민과 무산계층에게 혹독한 일을 했던 일도 없고 오히려 가난한 학생의 편을 들고 언제나 나서서 도왔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인민의 적으로 행동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손순표의 운명이 갈렸다. 인과는 알지 못할 때 천사거나 악마의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만일 그가 나서서 변론하지 않았다면 이후의 일들은 달라졌을 것이다.

1952년 봄이 되면서 전쟁은 지루한 공방전으로 피아 모두 고착된 전선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나아가지 못했다. 1952년 봄과 여름을 지나면서 휴전회담이 지루하게 진행됐지만, 북으로 돌아갈 것인지 남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해 4월 손순표는 포로 분리수용 절차에 따라 남쪽 포로로 분류되었다. 남쪽을 선택한 포로들은 거제도를 떠나 부산, 마산, 영천, 광주, 논산 등 5개의 포로수용소로 옮겨졌다. 잔류를 막으려는 인민군 포로들의 정치공작과 압박이 이어졌지만, 운명의 줄기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손순표는 트럭에 실려 북으로 옮겨졌다. 짐칸을 가린 천막 사이로 얼핏 보이는 것은 낙동강. 그리고 어린 시절 뛰어 놀던 고향집 앞의 강가 백사장이 보였다.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심사가 차분해지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영천수용소, 미군 명칭 ‘시아이 캠프4’는 1952년 8월 급조하여

시설이 열악했다. 그래도 영천행이 결정된 포로들은 북으로 송환될 위기를 넘겼다는 안도가 있었다. 휴전협정의 조인이 남아 있지만, 영천의 포로들은 남쪽에 남을 수 있다는 소문이 수용소 안을 떠돌았다. 거제도에 비하면 감시도 덜했고 밤이면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치학습과 사상 선동도 이곳에서는 없었다. 배급사정도 나아졌다. 그야말로 전쟁 통에 두 번째 사선을 넘긴 것이다.

보시 布施 3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팔종시와 무주상보시

보시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재물이나 물건을 가지고 행하는 재시와 사람들에게 이로운 진리를 설하여 베푸는 법시, 그리고 온갖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무외시에 대해서는 이미 말했다. 이러한 삼종시 이외에도 불교에서는 팔종시라고 하여 8가지의 보시를 들고 있다.

사람들은 보시를 하면서도 무주상보시를 하기는 무척 힘들다. 그것은 보시바라미이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한 보시이다. 보시의 마지막인 무주상보시는 보시를 받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청정하게 취득한 것을 가지고 집착 없이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이 하는 것이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보통 어떤 마음으로 보시를 할까? 그래서 나누어 본 것이 팔종시이다.

여기에는 먼저 수지시 隨至施라는 것이 있다. 나에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먼저 하는 보시이다. 즉, 나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우선하는 보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수지시를 행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모르는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나와 관계있는 사람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니 까 이것을 딱히 나무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승보살도를 닦는 보살이라면 멀고 가까움이 없이 보시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포외시^{怖畏施}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될 것을 걱정하여 하는 보시이다. 먹을 것은 쌓아 놓는다고 언제든지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음식은 쌓아 놓으면 곧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굶는 사람들에게 얼른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남방 불교의 탁발도 더운 나라의 특성상 음식은 곧 상하기 때문에 수행자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풍습일 것이다. 또 어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낫다. 그런 마음에서 하는 보시를 포외시라고 한다.

이어 보은시^{報恩施}라는 것이 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되갚기 위하여 하는 보시를 말한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이다. 사람은 남에게 신세진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베푼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렇기에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는 보은시는 훌륭하다고 할 것이다.

또 구보시^{求報施}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남에게 베풀면서도 다음에는 자기도 그에 걸맞는 보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보시이다. 내가 준만큼 되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보시는 진정한 보시라고는 할 수 없다. 물론 보시의 공덕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다음으로 습선시^{習先施}라는 것이 있다. 조상 때부터 해 오던 보시를 자손들이 이어서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가문은 번창하고 오랜 복을 누릴 수 있다.

또 희천시^{希天施}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천상의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는 보시이다.

좋은 소문이 나기를 바라고 보시하는 요명시^{要名施}라는 것도 있다. 명예심에서 하는 보시이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공덕은 있다. 가끔 보면 이름을 감추고 큰 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보시는 요명시와는 반대되는 공덕으로 큰 보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시들은 무주상보시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서 보시의 공덕을 바라고 하는 보시이기 때문에 그 공덕은 크지 않

다. 그러나 이런 보시도 보시를 전혀 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적지 않은 공덕이 있다.

마지막으로 위장엄심등시^{爲莊嚴心等施}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아끼고 인색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장엄하게 하여 바른 선정을 얻어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보시이다.

어쨌든 보시는 삼륜청정이 제일이다. 보시를 하는 사람은 차별 없는 마음으로, 그리고 바라는 것 없이 보시를 해야 하며 보시하는 물건도 부정한 것이 아닌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간혹 위선적인 지역 유지들이 나쁜 짓으로 모은 돈을 조금 내어놓고는 자선 사업을 하는 듯이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보시물이 청정하지 못해서 바른 보시라고 할 수 없다. 보시는 삼륜청정의 무주상보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보시바라밀이며 보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보고파서
하늘 쳐다본다

사룩 사룩
땀에서 눈물 되는 너

나만큼
그리웠나 보다

한동안
우린 서로 안아 보지도 못한 채

녹아내리고 있구나
서로 젖어 들고만 있구나

홀로 빛나는 별은 없다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한 사람에게는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큰 도약이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딘 ‘아폴로 11호’의 선장 닐 암스트롱의 말처럼 달 착륙에 성공한 1969년 7월 20일 오후 4시 18분(우리나라 시간 21일 새벽 5시 18분) 우주 개척의 새로운 역사가 열렸다. 달 착륙선 이글호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디딘 것은 6시간 반이 지난 오후 10시 56분(우리나라 시간 21일 오전 11시 56분),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된 이 장면은 전 세계 5억여 명을 환호하게 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3년이 지난 2022년 6월 21일 오후 4시, 우리나라에서도 두 차례의 도전 끝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약 2조 원을 투입해 자체 개발에 착수한 지 12년 3개월 만에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인도,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t 이상의 실용위성을 쏘아 올리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는 1957년에 시작되어 65년간 강대국의 전유물로 치부되어 온 인류의 우주 개발에 새로운 획을 긋는 일이자, 우주로 향하는 우리의 도전과 우수한 기술력을 입



증하는 일이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첫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호’가 145일 만인 12월 26일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니, 1992년 한국 첫 인공 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년 만에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연말에는 제22회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010년 제19회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냈다. 조별 리그 H조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0:0 무승부, 가나와의 2차전에서 2:3으로 패, 포르투갈과의 최종전에서 2:1 역전승으로 조 2위를 확정짓고 16강에 올랐다. 비록 16강전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랭킹 1위인 브라질에 1:4로 패해 8강 진출이 좌절되긴 했지만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와 뛰어난 기량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뜨거운 감동으로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다.

전 세계에 분포한 한류 동호회가 약 1,800여 개, 한류 팬도 1억 5백만 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기록도 가슴을 설레게 한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숫자로 이들을 논하지 말라.’라는 말로 상징되는 방탄소년단(BTS)의 인기일 것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보이그룹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팝 아이콘’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영국 오피셜 차트, 일본 오리콘 등 세계 유수의 차트 정상에 이름을 올리며 케이팝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음반 판매량과 뮤직비디오 조회 수, SNS 지수 등에서도 독보적인 기록을 써 내려가면서 영어로 발표한 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오르는 등 한 주에 빌보드 ‘핫 100’ 차트와 ‘빌보드 200’ 차트 정상을 동시

정복한 최초의 그룹이며, 통산 ‘빌보드 200’ 과 ‘핫 100’에서 각각 여섯 차례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BTS 참고 자료: 나무위키)

여기서 잠깐 돌아보자. 박수와 환호 뒤에 가려진 그들의 땀과 눈물, 열정과 투혼을. 그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저 어두운 곳,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험한 그곳에서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놓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고 자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암스트롱과 달착륙선 조종사 올드린이 달 표면에 내려 성조기를 꽂고 월석을 채취하면서 21시간 넘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아폴로 11호 조종을 맡았던 콜린스는 홀로 사령선에 머물며 달 궤도를 돌았다. 콜린스는 당시 우주선 단독비행이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자 달 착륙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 리더였다. 그러나 그들 3명을 모두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는 여전히 ‘잊힌 우주인’으로 남아 있다.

2021년 한차례 실패를 딛고 2022년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호의 달 궤도 진입 성공 밑바탕에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실패 끝에 2013년 과학기술위성 2호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은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있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위로 아시아 한정 월드컵 최고 순위 기록, 11회의 월드컵 최다 진출, 1986년 멕시코 월드컵~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10회 연속 진출, 세계적인 선수로 꼽히는 차범근-박지성-손흥민의 계보를 잇는 걸출한 신예의 등장... 오늘의 영광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본선에 처음 진출했던 1954년, 헝가리에게 0:9, 터키에게 0:7로 패하면서 대회 최하위를 기록했던 스위스 월드컵이 있다. 이후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32년 동안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아픈 도전의 역사도 있다.

방탄소년단 역시 꽃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다. 본래 안무보다는 노래와 랩에 집중하는 힙합 그룹으로 데뷔하려 했으나 콘셉트의 상당한 변경을 겪고 나서 지금의 아이돌 형식이 되었다. 데뷔 초에는 작사·작곡 기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아이돌이 힙합을 한다고 하여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치솟는 인기만큼이나 노랫말이나 의상, 콘셉트 등 다양한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사람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어제보

다 더 나은 오늘이 주어졌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아름다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다. 척박한 땅 위에 던져진 작은 씨앗이 움을 틔울 수 있도록 돌보는 따뜻한 손길, 가지를 뺏고 잎을 피울 수 있도록 북돋우는 마음이 그것이다. 여기에 혹독한 연습과 지치지 않는 열정, 강인한 의지가 더해져 나무의 키를 키우고 몸피를 늘리고 질푸른 잎과 깊고 너른 그늘까지도 그 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초와 향처럼 자신을 태워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곧 보살행이라는 생각에 새삼 마음이 숙연해진다.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는 어떤 것일까. 새해 벽두부터 사고 때문에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지만 ‘이만해서 다행이야’ 하고 마음을 달랬다. ‘이랬으면’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이렇게 좀 하지’ 하고 누군가를 원망한들 사태 해결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 액땀 잘한 셈 치고 지나자 하는데 인연사因緣事란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 어쩔 수 없을 때 혹은 전말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인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다. 어떤 일이 생기는 이유나 원인에 대해 대강은 알더라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경험한다. 따지고 보면 세세한 인연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부처님만은 예외로 해야겠지만.

그래서 인연은 깊고 미묘하다고 말하는가 보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인연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데도 이 정도 먹고 살아가고 있음을 돌아보며 “그래. 모든 게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다양한 인연 가운데서도 주목할 것이 사람 인연이다.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제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 같다. 부모자식 인연만큼 지중한 인연이 있겠나만 그 외로도 소중한 인연들을 그저 무심하게 지나쳤다. 한 사람이 최대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위안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얼마 전 인연의 지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 일이 있었다. 필자를 위해 기도해 준 이를 뒤늦게 알게 될 줄이야. 부모님을 비롯해 나를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는 분들을 그동안에는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고 예상치도 못한 분이어서 그랬는지 놀람이 컸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상상이 잘 가지 않는 일 아닌가. 그런데 이 분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필자를 위해 노심초사하던 한 지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주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인연일까.

그리고 보니 방송출연 의뢰를 위해 전화로 인사를 드리는데 “저국장님 알아요.”가 첫마디였던 것 같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때는 몰랐다. 방송국에 오래 있으니 방송을 통해 알았거나 혹은 불교계에 오래 있으니 그런 인연에서 알게 된 것 아닌가 짐작

만 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통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한 터였다.

몇 년 째 모르고 있던 소이연^{所以然}을 얼마 전이야 지인으로부터 직접 전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님이 아는 어느 스님과 지방 근무 시 인연이 된 분 등 나를 위해 기도하고 지도편달 해주신 여러 분들이 떠올랐다. 내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앞섰다. 빙산의 일각처럼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 또 잊고 지내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깨달음과 더불어 언제 어떻게 다가오든 그 인연을 소중히 맞이하고 가꿔나가야겠다는 다짐이 더 굳어졌다.

한 때는 세속의 인연을 떠난 뭔가 완벽한 경지를 추구하며 그런 것이 탈속이자 열반이라 생각했다. 그런 것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런 것은 판타지 소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자각에 더 이상은 찾지 않게 되었다. 열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길 밖에 없다는 믿음도 더 두터워졌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제대로 가꿔나가는 불자가 되길 서원한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재해^{災害}가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재해가 없으며, 어리석은 자는 장애와 어려움이 있으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장애가 없으며, 어리석은 자는 질병이 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고, 어리석은 자는 허물이 있으나 지혜로운 사람은 허물이 없는 것이니, 마땅히 어리석은 것은 멀리 버리고 지혜로운 법을 행해야 할 것이다.”

『사품법문경, 四品法門經』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을 주로 하는가. 미란다왕이 나선에게 물었다.

“스님, 지혜는 무엇을 주로 합니까?”

“지혜는 광명을 주로 합니다.”

“지혜는 어찌하여 광명을 주로 합니까?”

“왕이시여, 지혜가 생길 때 지혜는 무명의 어둠을 깨뜨려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심오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수행자는 모든 것을 ‘무상이다, 고다, 무아이다’라는 밝은 지혜

로 보려고 합니다.”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두운 집안으로 등불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는 어둠을 부수고 광채를 발하여 밝은 빛을 비추어 거기 있는 물건들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밝은 지혜로써 모든 현상을 바로 비추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란타왕문경, 彌蘭陀王問經』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진리도 또한 알지 못하며 세상일에 만 미혹된 자에 바른 지혜가 있을 수 없다. 무지한 자가 얻은 지식은 그에 이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그의 행운을 깨고 항상 고통만 불러들인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 즐겁고 뜻이 편하다. 성인이 말한 진실한 도를 지혜로운 자는 항상 즐거워한다.

『법구경, 法句經』 불교총진 발취』



〈우리 총지종〉

총지화 작사, 최영철 작곡

묘원화 전수
벽룡사

우리 총지종

슬기롭고 아름답게 ♩ = 58

총지화 작사 / 최영철 작곡

우리들의 총지는 비로자나부처님 -

1. 그 위용 시방 세계 자비광명비추리라 -
2. 그 진언 염송 하면 모든중생편안하리 -

정성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닦아가며 -
일심으로 정진하고 한마음 닦아가며 -

전생에서 지은 죄업 눈물로 지워 버리고 -
아름답게 꽃이 피는 좋은 세상 찾아 오리라 -

이 팔의 실 그대 따라 살아가리라 -
즐거우리라 기쁘리라 행복하리라 -

옴 마니 반메옴 옴 마니 반메옴

옴 자레 주레준제 사바하부림

Copyright © 2017.3.28. 묘원화

충남 대전 지역의 찬불가 보급과 발전을 위해 일평생을 정진한 최영철 선생님은 대전 보문산에 위치한 만보사와도 인연이 깊다. 최영철 선생님은 1990년대 초반 총지화 전수님을 시작으로 10년이 넘도록 박승자 단장과 함께 만보사 합창단을 지도했다.

또한 만보사 뿐만 아니라 연화사, 보문사, 광수사, 신광사 등 200여 명에 달하는 충청 연합 합창단을 조직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문득 당시 만보사 단일 합창단원이 40여명이던 그 시절 합창 활동하던 때를 회상하며 인생에서 가장 꽃같이 아름다웠던 때였다고 말하던 만보사 교도 보살님의 목소리가 생각나 추억에 젖는다.

최영철 선생님의 노래에는 ‘옴마니반메옴’ 진언이 자주 등장한다. 이는 불교총지종 만보사와 총지화 전수님과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유난히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옴’을 좋아하셨던 최영철 선생님에게 총지화 전수님이 준제진언 ‘옴자레주레준제 사바하 부림’과 함께하는 노래를 청하셨다. 〈우리 총지종〉은 이렇게 탄생한 노래이다.

총지화 전수님이 직접 쓰신 노랫말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과 진언 염송 실천으로 중생들이 지금 이생에 해탈에 이를 수 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슬기롭고 아름답게’라는 설명처럼 이 노랫가락은 밝고 또랑또랑한 느낌을 준다. 후렴구를 반복하다 보면 절로 진언 염송을 하게 된다.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2 그녀(Her, 2013)

#3 사랑의 블랙홀(1993)

#4 매트릭스(1999)

#5 아메리칸 뷰티(1999)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9 파이트 클럽(1999)

#10 옛지 오브 투모로우(2014)

#4 매트릭스 (The Matrix, 1999)

감독 워쇼스키 브라더스

영화 <매트릭스> 안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인식론·존재론·인지과학·인공지능·실존주의·마르크시즘·불교·기독교·허무주의 등이 녹아 있다. 주인공 네오(키아누 리브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구세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적인 메시아로 해석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세계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트릭스'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네오가 살고 있는 20세기 말의 세계이며, 이미 멸망한 세계를 대체하는 가상현실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네오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모피어스가 건네준 알약을 스스로 선택한다. 여기서 인간들이 처한 상황을 불교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전적인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에서 비롯된 신으로부터의 소외다. 하지만 <매트릭스>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가 아니라 미망(迷茫)과 무지(無知), 즉 무명(無明)에서 비롯된다. 이는 불교적 시각이다.

현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의 결과라는 것이며 만물의 본질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설파한다. 이는 장 보드리야르의 하이퍼 리얼리티를 의지하지만, 이 개념은 4세기에 불교의 유식학파가 이미 사상적 기반을 닦아 놓았다.

달빛 속을 거닐며 사람을 기다리다

이기찬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예를 들어, 영화에서는 손가락이 휘어지는 일화를 통해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色卽是空}’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온다. “휘어지는 것은 스푼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Then You Will See That It Is Not The Spoon That Bends. It Is Only Yourself.) 색즉시공, 색^色은 곧 공^空이다. 양자역학으로 치환하면 에너지^能와 물질^質이 상호변환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게 영화와 무슨 상관이나 묻겠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 주변의 세상이 뒤바뀔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후속 편에서 이어지는 네오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영화 속에서는 예언자인 오라클에게 네오를 대면케 해서 ‘그’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티베트 불교와 유사한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최고 수장인 달라이 라마가 선임 달라이 라마와 관세음보살의 화신^{化身}이라고 보았는데, 진정한 달라이 라마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비슷한 절차를 거친다.

同歸惠好盡衰年	좋은 이와 노년을 함께하고 싶으니
入夢儀形夜夜連	그의 모습 밤마다 꿈에 찾아오누나
梓社留期霖乍捲	고향에서 만날 약속 장마도 잠시 견혀
林皋偷眼月高懸	언덕을 언뜻 보니 달이 높이 걸렸어라
情知乘鴈行相續	기러기 줄을 잇듯 편지 계속 정답더니
會有雙魚報已傳	그대 마침 소식 주어 답장을 전하였네
蓬底登音眞自喜	봉창 아래 발걸음 소리 참으로 기쁘거니
莓落一逕莫停鞭	이끼 낀 예 오솔길로 어서 찾아오시길

- 이익(李瀾, 1681~1763), 『성호전집(星湖全集)』 권3

이 시는 성호 선생이 54세 전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 나 이 때입니다. 꿈에 그리던 이가 오랜만에 찾아오는지 연신 서성이며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달이 흰히 떠올랐는데도 그가 오지 않아 애가 탑니다. 노년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마음 맞는 지기였으나 운명의 장난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선생도 이제 만나려나 봅니다. 인생의 황혼 녘 빈들에 서서 설사 지난 회한을 눈물로 얘기한다 해도 나

에게 어깨를 내어줄 이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한 달 전에 저도 꿈에 그리던 두 친구를 찾았습니다. 돌담 틈에 기어올라 핀 제비꽃 한 송이에도 가슴이 먹먹했고, 순수했던 만큼이나 영혼이 시리고 아팠던 시절, 그 음울한 청춘의 한때를 기꺼이 동행해 준 벗들입니다. 술한 밤을 새우며 문학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밤하늘의 별 같은 시^詩로 상처받은 이들의 등대가 되려 했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과 한편이 되고 싶었습니다. 고교를 졸업하면서 세 문학청년은 등사기로 한 장 한 장 밀어 공동시집을 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다른 불안한 미래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시집 한 권을 들고 상경했던 저는 회색빛 절망이 꿈속까지 엄습하던 80년대를 버겁게 살아냈고, 채워지지 않는 불면의 술잔을 기울이며 쓴, 나약한 시들을 다 불태우고 나서 90년대를 맞았습니다. 이후 겨울바람에 흔들리던 앙상한 시인의 꿈도 미완의 그리움으로 남긴 채, 천 년의 숲 속 고전 번역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도 이따금씩 시가 사무치게 그리워지면 첫사랑처럼 그 친구들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차려야 할 가족의 밥상과 전쟁처럼 부딪쳐 오는 차디찬 일상의 순서들로 하여, 그들을 찾는 일은 아득한 먼 훗날의 숙제로 미뤄두어야만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연히 만난 따뜻한 경찰의 도움으로 어렵게 어렵게 친구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갈되었다고 믿었던 그때의 열정이 그 질감 그대로 되살아나고 이들과 함께 다시 꿈을 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령 그 예감이 행복한 착각이 된다 해도 ‘좋은 벗들과 함께 걷는 길이 천국’이라던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무는 황혼의 오솔길을 함께 걸어갈 친구를 찾아서 행복합니다. 달빛 마당을 서성이며 어서어서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날, 성호 선생의 즐거운 떨림이 280년 뒤의 이 후생에게도 격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저녁 저도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33년만의 해후입니다.

법과 원칙이 중요한 이유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불교에는 출가자가 지켜야 할 계율이 엄격하고 재가자 역시 준수해야 할 불법이 있다. 부처님은 왜 이런 계율을 만드신 것일까? 부처님은 신통력을 갖게 된 비구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보고 비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일과 행동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바른 법이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계율을 정하셨다. 그 계율에는 열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크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실수를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쳐서 안락하게 하고, 미래의 실수를 막기 위해서 라고 한 내용이다.

요즘 시사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법과 원칙’이다. 우리 사회에 이 단어가 중요 키워드가 되고 있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말, 즉 막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막말을 한 사람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되고 말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은 순간 비난의 화살을 맞게 된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론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도 하나, 그것

이 생각으로 끝났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은 생각까지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요즘은 생각을 한 순간 그것을 바로 SNS에 올리는 행태가 많이 보인다. 말은 화자(話者) 혼자 있을 때 한 경우, 청자(聽者)가 없으니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글로 써서 SNS에 올리면 청자가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청자 1명에게 한 말보다 파급 효과가 크다.

SNS에 글을 쓸 때는 혼자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글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 라고 말하고 싶은 표현의 욕구 때문이고, 글을 쓰는 순간은 한방향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줄 것으로 착각한다. 항의 받고 올린 글을 내리면 그만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그 글은 화자의 라벨을 달고 영구 보존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된다.

시시각각 위협하는 폭탄을 제거하는 방법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사과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과를 해도 억지로 하는 모습을 보여 이해관계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 이렇듯 뉘우침, 반성을 하지 않기에 또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게 된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은 화살 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한 사람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은 뉘우쳐야 안락해진다고 하신 것이다.

해서는 안 될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 사회는 혼돈에 빠질 것

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려면 서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법률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이다. 상식은 기본적인 양심만 있으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식을 행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다. 상식이 안통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착한 사람을 가리켜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하던 말이 이해가 된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우리는 법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다.

부처님은 계율을 만들며 첫 번째 목적이 교단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둘째는 대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셋째는 대중을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다. 이를 재해석하자면 엄격한 법을 지킴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막을 수 있을뿐더러 그것으로 대중들이 기쁘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법과 원칙을 지키자고 호소하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이다. 하여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불교에서 중도를 설명할 때 소나비구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한다. 소나비구는 라자가하에서 부처님의 계송을 듣고 출가한 부유한 장자의 아들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정진했지만 수행의 결과가 좀처럼 체득되지 않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속세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자질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한 소나비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보시로 공덕을 쌓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때 소나비구의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다.

“소나플리위사,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 악기를 잘 연주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예, 부처님.”

“그대가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을 너무 팽팽히 조이면 소리가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치게 느슨하면 듣기 좋던가?”

“좋지 않습니다. 부처님, 악기를 연주할 때 현의 완급을 적당히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로. 의욕이 지나쳐 너무 급하면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하려는 뜻이 없으면 태만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고 항상 가운데 길로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머지않아 이 속세의 미혹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나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하지만 예전부터 꼭 배워보고 싶은 악기가 있었다. 바로 해금이다. 어릴 때 고전 사극 드라마에서 들려오던 해금 소리가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해금을 배울 기회가 있으면 꼭 배워보고 싶었다. 때마침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해금 강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개월간 해금을 배우게 되었다.

해금은 작은 울림통에 세로로 대를 세우고 울림통과 대 사이에 두 개의 줄을 연결하고, 그 사이에 말총으로 만든 활대를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오른손은 활대로 줄을 마찰시키고, 왼손은 두 줄을 한꺼번에 감아 잡고 손가락을 쥐거나 떼면서 소리를 조절한다.

해금은 다른 악기들처럼 음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 제대로 소리를 내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해금을 제대로 연주하려면 뛰어난 음감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현과 활의 마찰에서 얻어지는 음들을 정교하고 조화롭게 다룰 수가 있다. 그래서 연주자의 손에 맡겨진 해금에서 예술혼이 살아 숨 쉬는 생명력이 깃든 소리가 발하려면 각고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데 이것은 해금을 연주하는 사람의 노력의 몫이다. 영혼을 울리는 해금소리는 연주자의 절차탁마^{切差琢磨}의 노력으로 얻어 지는 것이다.

즉, 중도의 이치는 적당한 줄의 조절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악기를 배워야하는 이유와 흥미가 있어야하며 그 악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 짧고 간단한 연습곡과 배우기 쉬운 동요로부터 시작해서 해금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게 설정한 여러 다양한 곡을 난이도에 따라 배열하여 고급단계에 까지 나아가는 연주자의 절차탁마^{切差琢磨}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Copyright ©김고만

모래로 밥 짓기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사)한국불교학회 법인이사, 상임고문
 80여 편의 논문 발표, 20여 권의 저·역서 발간
 <원효의 판비량론 기초연구> 등 3권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승랑, 그 생애와 사상의 분석적 탐구>
 한국연구재단 10년 대표 연구 성과 선정

“모래로 밥 짓기” 밥 짓는 시늬는 하지만, 수고만 들어갈 뿐 결과는 없다. 우리가 흔히 입에 담은 속담이지만, 그 출처는 불전에 있다. 『능엄경』에서는 “만일 음욕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다면, 모래를 찌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고 쓰고 있다. 이후 한산^{寒山}의 시문이나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에서도 이 비유를 차용한다.

불교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번뇌가 사라진 열반이다. 수^修혹^惑이라고 부르는 감성적 번뇌와 견^見혹^惑이라고 명명하는 인지^{認知}적 번뇌가 모두 사라지면 열반에 도달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다. 몸이나 마음에 내가 있다는 생각(유신견), 전생과 현생, 현생과 내생이 이어져 있다가 끊어져 있다는 생각(변집견), 인과응보의 이치를 부정하는 생각(사견), 이들 유신견, 변집견, 사견을 올바른 사상이라고 보는 생각(견취견), 잘못된 수행을 생천의 원인으로 생각하든지, 지계만으로도 해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계금취견), 사성제에 대한 의심(의) 등이, 견혹이라고 부르는 ‘인지적 번뇌’에 해당하고 탐욕, 분노, 교만 등이 수혹이라고 부르는 ‘감성적 번뇌’에 해당한다. 이런 번뇌가 모두 사라져야 불



교수행의 궁극 목표인 열반에 도달한다.

불전에서는 지혜를 크게 무루지(無漏智)와 유루지(有漏智)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무루지는 이들 번뇌의 뿌리를 뽑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지혜를 의미하고, 유루지는 이들 번뇌를 눌러서 나타나지 않게 하는 지혜를 의미한다. 무루지는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지혜이며, 유루지는 외도들도 알고 있던 지혜다. 유루지로 번뇌를 누르는 경우, 언제나 다시 번뇌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루지를 계발하는 게 중요하며, 무루지는 고, 집, 멸, 도의 사성제를 직관함으로써 체득되는데, 이렇게 사성제를 직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멸성제에 대한 직관이다.

즉 감성에서든 인지(認知)에서든, 번뇌(집)와 고통(고)의 완전한 소멸을 직관해야 무루지가 열린다. 인지의 차원에서 이렇게 무루지가 열린 성자를 수다원이라고 부른다. 수다원은 산스크리트어 ‘스로따 아판나(srota āpanna)’의 음사어인데, 예류(預流), 또는 입류(入流)라고 한역하며, ‘흐름에 들어간 자’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흐름’이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으로 향상하는 ‘성자의 흐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 특유의 무루지는 어디에서나 열리는 것이 아니다. 생명체가 사는 현장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로 구분되는데, 수행자의 마음이 색계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무루지가 열린다. 정확히 말하면 색계 초선정의 바로 직전인 미지정(未至定) 이상 되어야 사성제를 직관하여 무루지가 생길 수 있다.

즉 수행자의 마음이 최소한 욕계의 차원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무루지가 열린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식욕이나 성욕, 분노와 같은 동물적 감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수행자에게만 무루지가 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런 동물적 감성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수행이 바로 지계행이다. 살생, 도둑질, 사된 음행, 거짓말, 이간질, 험한 욕설, 꾸밈말, 탐욕, 분노, 사견 등 십악의 동물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야 그 마음이 색계의 차원으로 향상할 수 있다. 이런 행동을 끊지 못한 사람이 참선이나 명상, 삼매를 닦을 경우, 그 겉모습만 좌선하는 모습일 뿐이지, 결코 열반을 체득할 수 없다. 모래로 밥 짓기다.

사찰의 커피문화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이러한 차와 커피의 카페인은 적당히 마시면 일상생활을 향유 하는데 있어 활력제가 되고 수행의 조도(助道)로서 적합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경과민, 흥분, 불면 등을 유발한다. 실제로 최근에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한 처사로부터 로스팅이 잘된 품질이 좋은 원두로 추출된 커피를 맛본 후, 단전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어 좋은 느낌을 받았던 한 스님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차와 커피는 그 모양과 성질만 다를 뿐 수행의 조도(助道)로 충분히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함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내세워 수행의 한 방편으로 핸드드립 커피를 불교 상담에 접목시켜 보려는 의도이다. 불교 상담이라 하면, 명상을 빼놓을 수 없기에 상담 가운데에서도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흔히 사마타는 대상에 대한 집중으로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진 상태를 말한다. 그런가하면 위빠사나는 대상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하나씩 찢아 찢어 분리하여 여실지견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한다. 사마타는 대상에 집중하는 삼매(定)수행이라면 위빠사나는 대상을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반야[慧]수행인 것이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고요함과 고도의 집중이라는 사마타의 힘이 아니면 위빠사나의 지혜가 바르게 생₄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둘 중 어느 하나의 수행만 중요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이 견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 핸드드립 커피를 응용하고자 함은 앞서 차를 내리는 과정과 커피를 내리는 과정이 추출자의 마음가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커피를 내리면서 지₁와 관₂이 함께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걷기명상과 같은 맥락으로 커피 도구를 준비한다. 그리고 직접 도구를 다루는 마음에 집중상태를 유지하여 그라인딩 및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활용하여 동작 하나하나를 살피고 느낀다. 이를 통해 마음을 정화시켜 고요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불교의 다양한 명상법 가운데 어느 한 명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상태에 따라 명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더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핸드드립을 이용한 커피

명상 또한 개개인의 마음 상태에 따라 추출과정이 힘들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커피 맛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할 것이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 있는 내담자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수행이 무르익으면서 맛있게 커피를 내리기 위한 정성스런 마음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 내담자는 순간 집중하여 도구들을 다루면서 추출하는 과정을 하나씩, 찰나 살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커피의 성분과 효능을 감안할 때 내담자에게 매우 색다른 불교 명상이나 상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금까지 커피의 한국전래 및 제조과정에 대해 개관한 후 사찰 템플스테이에 이르기까지 그 보급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수행과 포교의 방편으로 커피를 도입하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불교와 커피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의의를 찾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찰의 커피문화와 활용방안은 차 문화와 방식과 맥락이 비슷할 수 있으나 그렇더라도 선불교의 다도와 달리 그 전통성과 사상이 침해되고 상업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한계와 문제점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커피는 커피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먼저 전통성과 사상 면에서 본다면 선불교의 다도와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통음료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겨울철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공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찬 기운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따뜻한 음료를 찾아 마심으로써 몸을 데워 추위를 이겨냅니다. 이렇게 음료 한잔을 마시며 몸도 따뜻하게 만들고 건강도 지켜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나라 전통음료에는 겨울에 마시면 좋은 음료들이 많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차 문화가 발달해 왔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교가 쇠퇴한 뒤 차를 대신하는 감잎차, 모과차, 유자차 등의 대용차들과 약성이 있다는 다양한 음청류들이 크게 발달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통 음료로는 차_茶류, 탕_湯류, 장_漿류, 숙수_{熟水}, 갈수_{渴水}, 화채류, 식혜, 수정과가 있으며, 만드는 방법에 따라 종류도 다양하고 맛과 향뿐만 아니라 음료의 효능과 우수성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끓여 마시는 음료를 탕_湯이라고 합니다. 탕은 꽃이나 과일 말린 것을 물에 우려거나 끓여 마시는 것, 한약재를 끓이거나 오래 졸여서 만들어 저장해두고 타서 마시는 모든 음료를 말합니다. 대추차, 구기자차, 국화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장_漿은 재료에 꿀이나 설탕 등을 넣어 숙성시키거나 오래 저장시켜 만든 음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자청이나 모과청으로 만든 유자차, 모과차가 장류에 속하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낫선 이름의 숙수^{熟水}는 향약초를 달여 만든 음료로 꽃이나 차조기잎 등을 끓는 물에 넣고 그 향기를 우려 마시는 것, 한약재 가루에 꿀과 물을 섞어 끓여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송농도 숙수라고 하였습니다.

숙수^{熟水}의 ‘숙’과 냉수^{冷水}의 ‘냉’이 합쳐져, 즉 익혀서 식힌 물을 말하고 처음에는 숙랭으로 불리다가 숙냉 그리고 송농으로 바뀌었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토하는 ‘열격’이라는 병을 앓는 사람을 낫게 하는 치료제로 누룽지를 물로 푹 삶아 송농으로 만들어 먹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식혜는 우리 전통 음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음료입니다. 명절이나 생일, 잔칫날에 어김없이 준비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음료로 맛도 좋고 과식 후 소화제를 대신하는 음료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변해서 오래두고 먹지 못하기에 여름보다는 오히려 겨울에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

이처럼 겨울철에 마시는 우리 전통음료에서는 맛과 향 뿐 아니라 계절과 조화를 이루며 건강까지도 생각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요즘 따뜻한 음료라고 하면 커피가 먼저 생각 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우리 전통 음료 한 가지라도 직접 만들어 마셔보는 것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 않을까요?

어느새 대보리를 지나 강사리에 들어섰다. 마을은 텅 빈 듯하고 정자 쉽터 옆에는 화강석으로 새긴 시비^{詩碑}가 장승처럼 우두커니 서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시비는 흔히 볼 수 있는 송덕비도 아니었고, 유명시인의 시비도 아니었다. 서울에 사는 이곳 출신 박광훈 씨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절절하게 지은 애향 시비였다. 고향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문득 궁금해졌다.

길은 계속 이어졌다. 고래가 머무는 다무포 하안마을을 지나고 길옆에 피어 있는 자생지 해국^{海菊}을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석병리를 향해 걸었다. 헌남노 태풍 영향인지 길은 중간 중간 끊어져 있었고, 안내문에 따라 우회 길을 걸었다.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배는 더 고파왔다. 식당을 찾아야 했다.

석병리에 들어섰다. 바다는 윤슬로 반짝이고 동해안 땅 끝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눈에 들어왔다. 석병리 옛 지명은 두일포^{斗日浦}였다. 조선 유학자 우암 송시열이 장기현에 유배를 왔다가 이곳 지형을 보고 두일포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어디쯤 왔을까. 국도를 따라 걷다가 “오륙도 횃집” 대형 입간판을 발견하고서 우리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가움의 환호를 질렀다. 그러나 찾아간 오륙도 횃집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문은 닫혀있었고 폐업 상태였다. 허기진 몸은 물먹은 솜처럼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이 모든 원인은 안이하게 생각하고 준

비 없이 떠난 결과였다. 그러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식당을 만났다. 배낭을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 진수성찬을 즐겼다.

다시 걸어 삼정리에 도착했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잘 지은 육각형 정자 쉼터에는 사람 대신 낡은 텐트가 풍찬노숙(風餐露宿)하고 있었다. 달 밝은 밤이면 신선이 놀았다는 관풍대(觀風臺)도 무슨 연유인지 입구가 철문으로 막혀 있었다.

구룡포 해수욕장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었다. 철 지난 바다, 사람이 떠난 바다는 황량하고 쓸쓸했다. 우리는 바다 저 너머로 떨어지고 있는 해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우측 해변을 돌아서니 구룡포항이 지척이었다. 항구는 밤이 되면 피아(彼我)를 극명하게 갈라놓는다. 바다는 칠흑 같은 어둠에 싸여 있고, 육지는 대낮같이 밝았다. 바다가 깊은 침묵이고 죽음이라면, 육지는 아우성이며 삶의 현장이었다. 과연 우리가 찾는 피안(彼岸)의 세계는 바다일까, 육지일까?

그렇게 우리는 불빛이 환한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구룡포의 밤은 그렇게 깊어 갔다. 내일은 해파랑길 13코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인왕제색도, 한국 회화사를 대표하는 걸작

위드다르마 편집실

1751년 76세의 노대가 정선(鄭敾, 1676~1759)이 인왕산의 비 갠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바로 정선의 대표작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입니다. 그로부터 270년의 세월이 흐른 2021년 4월, 고(故) 이견희(李健熙, 1942~2020)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여 <인왕제색도>의 명성이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정선에게 특별했던 작품

<인왕제색도> 오른쪽 짙막한 글에는 화가 스스로 무엇을 누가 언제 그렸는지 친절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세로 79.2cm, 가로 138.0cm로, 조선 회화 중 규모가 큰 편인 이 그림은 크기와 높은 완성도, 화가가 직접 쓴 글로 보았을 때 정선에게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인왕제색도>는 한국 전통 회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대상을 놀랍도록 똑같이 그린 것도 아니고, 붓놀림이 정교하거나 현란하지도 않고, 그림에 눈길을 끄는 세부 요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왕제색도>에 매료되는 이유는 공간감과 실체감, 그리고 먹의 깊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그림을 한참 바라보면, 정선의 그림을 놓고 “진장하고 웅

흔하며 끝없이 넓고 원기 왕성하다(壯健維源浩汗淋漓)”라고 평한 <송천필담(松泉筆談)>의 기록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림이 그려진 지 270년이 지났는데도 산세를 표현한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인왕제색도>를 그린 이유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린 까닭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림 아래쪽에 집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추정하며 정선이 누구를 위해 그림을 그렸는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미술사학자 최완수는 이 집을 정선의 평생지기인 이병연(李秉淵, 1671~1751)의 집으로 보았습니다. 정선이 시와 그림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눈 이병연의 쾌유를 기원하며 병이 나은 상태를 비견 인왕산으로 표현했다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다른 의견으로 미술사학자 김가희는 정선의 주요 주문자였던 이춘제(李春濟, 1692~1761)의 서원(西園)이 인왕산 기슭의 세심대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인왕제색도>는 이춘제가 주문한 작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술사학자 홍선표는 이 집은 정선이 지금의 옥인동에 지은 인곡정사(仁谷精舍)를 그린 것으로, 인왕산 경관을 기념하려고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미술사학자

윤진영은 실제 위치로 보았을 때 그림 속 집은 세심대 아래에 있던 정선의 외할아버지 박자진(朴自振, 1625~1694)의 집인 풍계유택(楓溪遺宅)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견이 있으나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림 속 집이 제작 사유와 진정 관련이 있는지, 실제 위치를 고려하여 정선이 그림 속 집을 배치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인왕제색도>를 그렸든 간에 인왕산은 정선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선, <인왕제색도>, 조선 1751년, 족자, 종이에 먹, 79.2×138.0cm, 2021년 이건희 기증, 국보

평생의 역작으로 남다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자신을 위해 그렸다면, 그 순간을 떠올리며 당시 정선의 마음을 상상해봅니다. 부친의 이른 죽음으로 10대 부터 집안을 이끈 장남 정선은 청년기를 힘들게 보냈고, 30대에 뒤늦게 화가로 명성을 얻었으며, 41세가 되어서야 관직에 올랐습니다. 화가로 성공한 정선은 밀려오는 주문으로 바빴지만, 그만큼 삶은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평생지기 이병연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젊은 나이여도 친한 지인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상황이 내게도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데, 70대 후반인 정선에게는 더 그러했겠지요. 이병연이 아팠던 그 시기, 정선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인왕산은 정선의 시선과 발걸음과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또한 인왕산 청풍계는 정선을 이끌고 후원해준 안동 김문 어르신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정선은 자기 삶과 삶의 터전이 되어준 인왕산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떠올리며 비 갠 인왕산의 특별한 순간을 한 폭의 그림으로 펼쳐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평생의 역작이 되었습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이수경> 제공

진호국가불공과 사대천왕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불교충지중은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호국가불공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불공 정진의 주목적은 나라발전과 호국, 국민안락을 기원하기 위함이며, 또한 각 교도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서원합니다. 특히 상반기 불공은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하반기 불공은 조상영식을 위한 기도를 함께 올립니다.

이러한 진호국가불공은 기본의례인 ‘진호국가불사의례’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진호국가불사의례’는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의 제3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만다라관(曼荼羅觀), 진언(眞言, 음험야호사), 지권인(智拳印)이 있습니다.

만다라관은 오불(五佛), 사보살(四菩薩), 사대명왕(四大明王), 사대천왕(四大天王)을 관합니다. 오불은 중앙 비로자나불, 동방 아축불, 남방 보생불, 서방 아미타불, 북방 불공성취불이며, 사보살은 동방 금강살타보살, 남방 금강보보살, 서방 금강법보살, 북방 금강업보살입니다.

또한 사대명왕은 동방 향삼세명왕, 남방 군다리명왕, 서방 대위덕명왕, 북방 금강야차명왕이며, 사대천왕은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북방 다문천왕입니다.



부여 무량사 북방 다문천왕, 동방 지국천왕



부여 무량사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목천왕

여기서 사대천왕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대천왕은 불교를 수호하는 선신·호법선신으로 사악한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을 보호하고 불법과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경내로 들어서는 입구이자 속세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구분하는 일주문을 지나 사천왕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의 사대천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대천왕은 부릅뜬 눈, 크게 벌어진 입, 갑옷을 입고 있으며 발 밑에는 고통 받는 마귀들이, 양손에는 천왕마다 각기 다른 지물(持物)을 들고 있습니다. 전통사찰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국토를 지켜주는 동방 지국천왕은 오른손에 칼, 왼손에는 보배구슬을 들고 있고, 만물을 소생시키는 남방 증장천왕은 오른손 용, 왼손 여의주를, 중생을 도와주는 서방 광목천왕은 오른손 삼지창, 왼손에 보탑을, 북방 다문천왕은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부처님의 설법을 빠짐없이 듣는다고 합니다.

낙엽 한 잎의 사랑

유소림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쥐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등

곤충은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 거미는 곤충이 아니다. 다리가 여덟 개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다. 그래서 나비는 모두 다리가 여섯 개 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다리가 네 개 달린 나비들이 있다!(인간세의 분류표란 그렇게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집 과꽃 꽃밭에 자주 날아오던 작은 멋쟁이 나비도 네발나비 족속이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네발나비들이 성충으로 월동한다는 사실이다.

손톱으로도 뭉개질 연한 몸과 꽃잎보다 부드러운 날개를 가진 나비. 그 조그만 벌레가 산천이 팡팡 얼어붙는 산골 겨울을 성충으로 견디다니! 네발나비는 낙엽 아래나 나무둥치 틈새에서 죽은 듯이 겨울잠을 잔다. 그렇게 신비한 월동이 가능한 것은 그 미세한 공간에 네발나비의 월동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처럼 국소적으로 주변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를 미기후^{微氣候}라고 한다. 낙엽 몇 장이 생명을 보호하는 따스한 미기후를 만들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니, 이 지구라는 행성은 얼마나 사랑에 넘치는 장소인가.

“사람은 일단 정서적으로 여립니다. 그래서 1g의 말에 상처 받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 마슬로우의 사랑욕과 인정욕이 채워져야 최후로 자아실현욕이 발동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1그램짜리 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말로 사랑욕과 인정욕이 채워진 사람은 드디어 자기의 인생을 활짝 꽃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씀하신다. 아, 사람도 저 네발나비와 똑같구나! 몇 마디 따스한 말이 미기후를 만들어내어 외로움과 슬픔이라는 엄동을 넘어서게 한다. 영문도 모른 채 하늘 아래 태어나 낯선 인생길을 걸어 가는데 어찌 외롭거나 슬픈 때가 없으리. 어찌 낙엽 몇 장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으리.

우주 역사 138억 년을 돌아본다. 우주의 한 변방에 미기후의 미기후가 생겨난다. 그리고 네발나비보다 천 배, 만 배 연약하고 섬세한 생명의 요소들이, 무한 우주를 외로이 떠돌던 그것들이 하나씩 모여들면서 이 우주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터이다.

대단한 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생명은 낙엽 몇 장으로도 사랑을 느끼고 삶을 살아간다. 생명의 시원이 본래 그렇게 섬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 따스한 말로 자아욕구가 발동되어 자기의 인생을 활짝
꽃 피우게 됩니다.” 자아를 활짝 꽃 피우게 하는 한마디 말. 그 한마
디 말 속에, 낙엽 몇 닢의 미기후 속에 최고의 자기완성이 꽃핀다.
부처가 탄생한다.

생명이며, 인간이며, 사랑이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대 앞에 무릎
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응축할 때는 한없이 작아서 바늘하나 꽃을 구멍조차 없지만, 넓을 때는 한없이 넓어진다고 하지요. 우리 마음이 좁아졌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예를 들어 자식들이 엄마에게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하고, 소리소리 지르며 떠들고 장난치고 뛰어노는 상황에서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는 화를 내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어가 공부나 해” 라며 소리칩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은 마음이 활짝 열리며 자식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도 다 해주게 되고, 싸우고 떠들고 장난치는 것조차 아름다워 보입니다. 특별히 자식에게 게임도 하게 해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마음이 한없이 넓어지면서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행동들을 다 허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마음이 닫혀 있어 응축할 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릴 때와 닫힐 때 볼 수 있는 것들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며 웃는 소리조차

너무 듣기 싫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소리치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릴 때는 심지어 자녀들의 웃고 떠드는 모습 속에서 흡사 천상세계를 보는 것 같은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 때는 왜 그렇게 화를 냈었나 하고 반성도 하지요.

이처럼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세상이 자비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며,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수많은 보배와도 같이 빛나는 많은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은 그래서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창문으로부터 비쳐오는 따스한 아침 햇살 하나를 보면서도 놀라운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게 되고, 이 겨울 앙상한 나뭇가지가 파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모습을 올려다보며 깊은 고요함과 놀라움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그저 배경으로 스쳐지나가기만 하던 많은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기 시작하고, 사소하던 것들이 전부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세상도 내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에 따라 천상으로도 보이고, 지옥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이 지옥처럼 괴로운 곳인지 천상처럼 행복한 곳인지는 외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한 가지 상황이나, 생각에 사고가 한정되고 제한되어 있을 때 닫힙니다. 혹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집착하고 있을 때 전체를 향한 열린 마음은 사라지게 되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지혜롭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하게 됩니다. 뻔히 보이는 답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특정한 대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편견 없이, 분별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받아들임의 상태이지요. 세상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보이지 않던 수많은 것들이 비로소 반짝이는 별들처럼 내 삶 속에 들어와 빛나게 될 것입니다.

-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공식 카페

49일간 매일 언니 불공을 하고 보니
천사 같은 우리 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형제들 걱정, 자식 걱정 하시느라
부잣집에 시집 가셨어도 시집살이 일만 하시고
말없이 참고 사신 우리 언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뭘 안다고 젓먹이 조카를 업고
향각골 집(고인의 친정)으로 몰래 도망을 갔을까요?

언니 얼굴 보러 갔다가
우물의 물을 퍼서 많은 식구들 빨래하시고
아기 젓 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일 하시는 모습을 보고
동생 옥희가 아기를 업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제는 좋은 곳에서 좋은 대접 받으시고
편안히 지내십시오.

동생 옥희 올림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㉓		㉒		㉑		㉐		②	㉏
				③					
④	㉍		⑤㉔					⑥	
							㉌		
⑦								⑧	
				⑨	㉋				
㉔							⑩		㉒
⑪			⑫㉑						
							⑬㉑		
⑭						⑮			

가로 열쇠

- ① 총지중 종조 원정대성사의 진영이 봉안되어 있는 역사 기념관
- ② 사건이나 사도를 깨어 버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 파사00
- ③ 옛날부터 전해 오는 관습으로 계절에 맞춰 행해지는 고유 행사와 풍습
- ④ 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을 간수하여 보관하는데 쓰는 창고
- ⑤ 각 시·시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
- ⑥ 해변이나 섬, 방파제 근처에 높게 세운 탑 모양의 구조물
- ⑦ 한량없는 중생에 대해 일으키는 네 가지 마음(사무량심)
- ⑧ 낙숫물이 밑으로 흐르다가 추위로 길게 얼어붙은 얼음
- ⑨ 독일에서 개량된 호위견, 경찰견으로 이용되어 온 개의 한 품종
- ⑩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 ⑪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사람
- ⑫ 지식을 모아서 정리한 책, 나무위키
- ⑬ 먹는 용도의 기름으로 주로 무언가를 부치거나 튀길 때 쓰임
- ⑭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긴다는 뜻의 사자성어
- ⑮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상황에 대한 깊은 통찰이 가능한 능력, 00로운 사람

세로 열쇠

- ㉑ 원금과 이자를 합친 돈
- ㉒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재물을 무상으로 내주는 것
- ㉓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관세를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 ㉔ 닭고기 토막을 기름에 튀겨 양념소스를 끼얹어 만드는 한국식 중화요리
- ㉕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날, 음력 1월 15일
- ㉖ 생산량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
- ㉗ 시가詩歌가 발생하여 변천해온 역사
- ㉘ 우쭐하여 뽐내는 기세가 대단하다는 뜻의 사자성어
- ㉙ 독도 연안에서 잡히는 식용 새우
- ㉚ 프랑스의 정치적 수도이자 왕궁이 자리했던 도시, 0000 궁전
- ㉛ 뒷사람 아랫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질서가 있음을 뜻하는 삼강오륜의 하나
- ㉜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최고봉 해발고도 2,750m
- ㉝ 쌀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린 물을 부어 식힌 뒤 단맛이 나도록 만든 음료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지난호 정답

㉠㉡	해	불	㉢		㉣㉤	일	일	시	㉥	일
세			공		일				호	
우			동		망				시	
㉦	㉧		㉨	나	타				㉩	육
잠	수		소						탐	
	드		유		㉪	㉫			탐	
					㉬	㉭			㉮	
	㉯	입		㉰		㉱		㉲		㉳
	라			화		시		차		기
㉴			㉵	공				㉶	람	회
데			불					㉷		
㉸	타	㉹			㉺					비
카		르			미					
르		㉻	이	㉼	르			㉽㉾	완	용
		네		마				이		
트		상		사		㉿		성		
	㊀	스	라	이	팅			㊁	묘	년
	가							계		

독자기고

금오봉 가는 길

김용오
포항수인사 교도

포석정 석구*石溝 맑은 물에 술 한 잔 건져 올려
망국의 한 태워 목을 적시고
천년을 찌렁, 찌렁 호령하던 왕명은 석실에서 잠들고
그 왕릉 비켜 돌아 한발, 한발, 천년 숨결 호흡하며
금오봉으로 향한다

한발 디더 들려오는 화랑의 함성
두 발 옮겨 들리는 평화의 타종 소리
또 한발 옮기면 통일의 기도 소리
바위에 등 기댄 부처님의 독경 소리 산천을 울리는데
다람쥐도 도토리 물고 108배 시작한다

진달래 꽃 입에 물고 묵언수행 천년바위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그날은 언제일는지

바둑 바위 걸터앉으니 솔바람에 묻어오는 천년의 숨소리
산새들이 읽어주는 금호 신화 한두, 줄에 망산에 해 걸리네

*석구石溝: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을 즐기 위한 용도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내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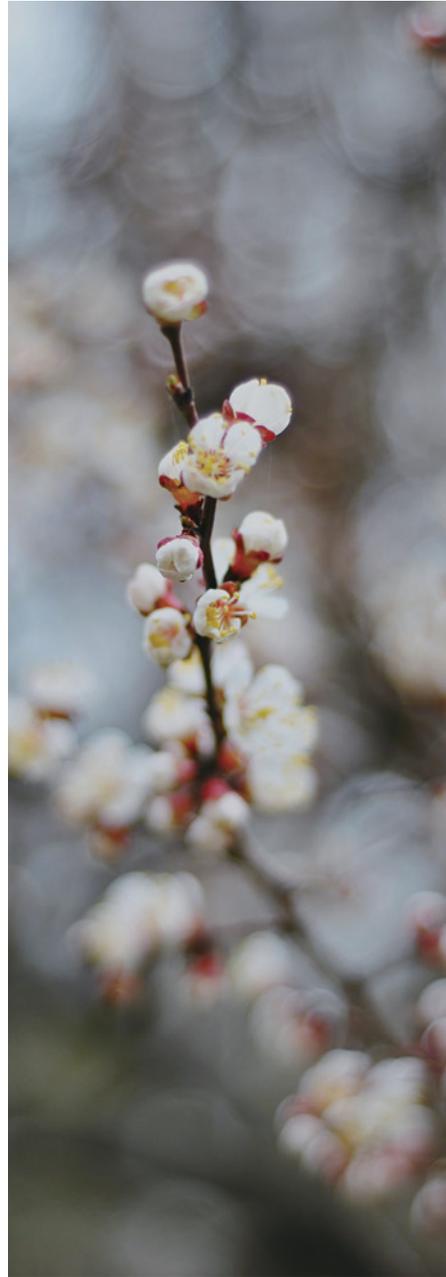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공재호 김종철 법 공 안한수 오승현
오채원 오현준 자선화 정화연 주건우 총지화
한철수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는 범정 스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사람은 앞으로 계속 동행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필요도 내 진심을 전부 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진실된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이심전심이란 말처럼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좋은 인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연이 진실되기를 선연은 더욱더 깊어지기를

02월호



복의 종자는 자기가 심지만
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이다
좋은 인연은
육행 실천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 환당 대중사 법어록 중에서 -